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아키노 대통령

박영숙 / 국회의원

아키노 대통령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1988년 8월 20일이었다. 대통령 관저인 말라카냥궁 접견실에서였다. 아키노 대통령의 남편인 아키노 전상원의원 암살5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키 위해, 그들 부부와는 미국에서의 정치망명 당시부터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가깝게 지낸 바 있었던 김대중 총재 내외분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던 것이었다.

그때 아키노 대통령은 몹시 지쳐 보였다. 불안한 정치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격무와 남편의 추모식에 관련하여 심정적으로 우울했으리라고 생각되었고,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전날 있었던 라우렐 부통령의 하야 요구 때문이었으리라 짐작되었다. 라우렐 부통령을 포함한 정적들은, 필리핀이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공산반란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그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당시 그곳의 분위기였다.

나는 60년대 초부터 수차 그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마음 아팠던 일은, 이름답던 그 나라의 수도 마닐라가 갈 때마다 눈에 띄게 퇴락해 가며, 도시 전체가 슬럼화돼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는데, 마르코스의 실정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어떤 이의 표현처럼 살을 다 발라먹고 남긴 생선같은 것이 오늘의 필리핀이다. 이러한 도시의 외관은 누구보다도 필리핀 민중들의 삶이 비참함을 여실히 엿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적을 제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국민들의 아키노대통령에 대한 애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한 현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추모 미사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서 알 수 있었다.

라우렐 부통령의 하야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에서, 그는 그 전날의 지쳐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엄을 가지고 “나의 책임은 정적들과 한 약속이 아니며, 이 나라의 헌법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므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국민의 지지가 유지되는 한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져 그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남편이 필리핀 민중을 위해 품었던 그 높은 뜻을 끝내 성취하겠다는 그의 말은 아키노 전상원의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국민들의 신뢰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했던 것이었다.

아키노 대통령이 정계에 투신



하게 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망 후, 남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민중의 편에서 싸웠으며, 반마르코스 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통령선거에서, 야당후보 단일화과정의 조정원의 일원이었다. 다수야당 지도자들이 이의없이 추대하게 된 후보자가 바로 아키노 여사였던 것이다.

아키노 여사가 가정주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는 대통령선거와 87년 2월의 민중혁명이라는 험겨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들 평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아키노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평범한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민주화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을 가슴아프게 지켜보며 민주화의 투사가 되고, 남편들이

정치범으로 탄압을 겪는 과정에서 아내들이 고양이에서 호랑이가 되어 오늘의 민중, 민주, 통일운동의 세력 기반이 되었듯이, 아키노 대통령도 불의와 싸우면서 강인한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는지도 모른다.

아키노 대통령이 필리핀 민중들이 걸고 있는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대통령으로서 하루속히 현정을 현실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는 부성보다 모성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토록 역경을 겪고 있는 필리핀 민중에게는 아키노 대통령과 같은 따뜻한 어머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주효할 것이다.

작년 5월, 나는 아키노 대통령에게 아시아 여성정치인 모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모임에서 아시아 여성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수탈 문제, 민의 뜻에 반하는 핵기지화 문제, 군사문화의 폐해 문제, 에이즈 문제, 매음관광 문제,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연대를 통하여 모색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얼마전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받고, 우리의 뜻을 펼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기대를 가져 본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투지 강한 현대적 여걸

여성신문. 64호
90.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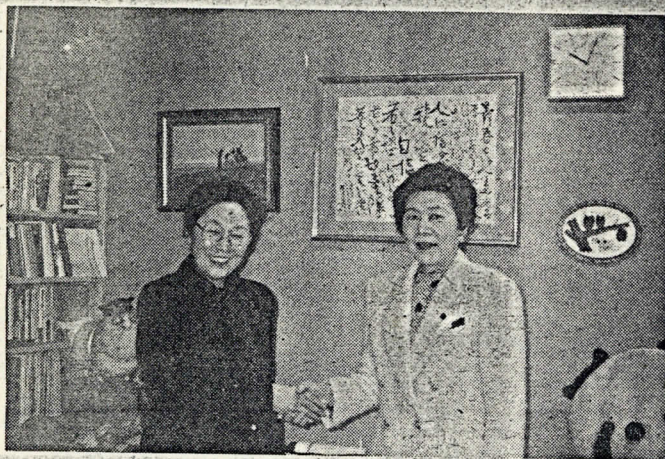
박영숙/국회의원

지난 여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참패시켜 소위 '마돈나 선풍'을 일으키고, 금번 중의원 선거에서 오랜동안의 보수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딛고 사회당이 대 약진을 이루는데 주역이 된 일본 사회당위원장인 도이 다카코. 그와의 두번에 걸친 만남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도이와의 첫 만남은 1984년 여름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주최의 매음여성문제 포럼에서였다.

작년 봄에 있었던 두번째의 만남은 동경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였는데, 그는 일본 사회당위원장으로 그리고 나도 그때는 의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정치인 사이의 뜻깊은 만남이 되었다.

내가 마닐라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도이는 사회당의 부위원장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정치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그의 정치경력에는 무심했었다. 다만 강하게 받은 인상은 도이가 아주 활달하고, 투지가 강한 현대적 여걸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일본 대중오락인 뽕짝꼬를 즐긴다는가 TV프로에서 서슴없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그의 적극적인 성품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두번째 만남의 목적은 아시아 여성 정치인의 모임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는 만나자마자 말이 쉽게 통했다. 둘다 학생운동 출신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랬지만 서로가 추구하고, 하는 일이 공통점이 많았다. 우리는 모두 반핵, 군축, 공해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도이는 의회에서 일본이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나 또한 동-서와 남-북간의 모순과 갈등을 집약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평화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평화운동이야말로

로 국경을 초월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로서 무엇보다도 아시아 여성으로서의 결속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오랜 유교문화권에서 아시아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아픔, 나아가 여성들의 정치활동에 가해지는 여러 제약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여성 또는 여성정치인들의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이가 철지한 남성 위주의 일본 정치풍토에서 다선의 경력을 쌓았으며, 정당의 당수직을 명쾌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정치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의 양심과 정의, 그리고 지성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늘 아쉬웠던 것은 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의결하는 현장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오늘날 바른 정치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 바로 여성들이 그런 인간군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집념이 그가 치뤘던 양대선거에서 놀라운 수의 여성을 진출시키는데 성공하도록 하였는지 모른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선거를 눈앞에 두고 나는 도이가 일으켰던 "마돈나 선풍"이 자꾸 생각난다. 여성들이 선거전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지원해 주었던 여성 선거운동요원들과 유권자들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했었다. 금전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선거풍토에서 깨끗한 정치를 해내겠다는 소신은 있으나 돈과 권력이 얽은 여성후보자들이 승리하기까지는 그들의 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도 금번 임시국회에서 여성의 시도의회 진출을 확보해낼 수 있는 선거법을 얻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들을 서로간에 지원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